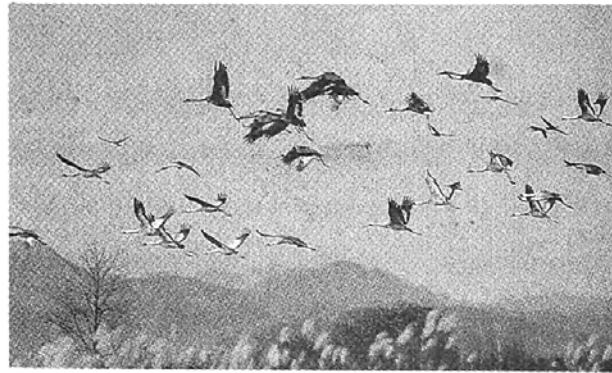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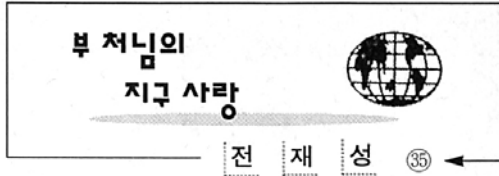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삶 외면 '다함께 죽는길'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가 모두 인연법으로 묶여있다.



의 종류는 나무와 풀, 곤충, 네발 달린 동물, 파충류, 물고기, 새와 인간이다. 여기서 인간은 다른 하위 종에 비해 다른 모든 종을 대표하는 최상위의 생명체로 묘사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식물도 분명히 여기서 생명체(pana)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중생(衆生)의 의미에는 식물이

사이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류가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 존엄성과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국제자원보존연맹(IUCN)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1백56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실천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어느 한 생명체나 종이 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어떠한 종도 천적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에 이르러 극명하게 밝혀진다.

한 독일의 생태학자는 동물실험에서 한 호수에 개구리의 모든 천적을 없애 버린 뒤, 한 쌍의 개구리가 낳은 수백만 마리의 알을 모두 부화시켜 개구리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호수에 백만마리의 올챙이가 모두 부화하자 한 호수에서 올챙이들끼리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올챙이가 한마리도 남김없이 사멸하는 결과가 생겨났다. 그 이유를 살펴본 올챙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독극약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호수의 물이 오염되어 어느 시점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이었다.

개구리의 천적을 인위적으로 없애 결과 실현된 것은 개구리의 천적이 아니라 모든 개구리의 사망이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만을 위해서 애쓰는 현대문명은 인류를 사멸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은 그 자신이 하나의 생명체의 종으로서 모든 다른 종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 둔 일부 불자 부모들 가운데 식사 때마다 황당한 경우를 당하곤 한다. 식사에 앞서 아이들이 두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유치원 앞에서 타종교인 교사들에 의해 식사예절로 배운 것이어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이르기까지 중생의 노고를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들이 받는 음식은 농부의 피땀흘린 노고와 함께 수많은 이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음식을 내가 부끄러움없이 받아먹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루의 생활을 돌이켜 반성해보도록 하는 것이

금주의 주제

공양계

수많은 이들의 공덕에 감사

'맛' 탐닉하기보다 수행위한 '藥' 삼아야

계 해야 하나' 하는 것이 그 불자 부모들의 현실같은 하소연이다.

이에대한 답은 간단하다. 불교에도 '바부공양'이라는 전통적인 식사법이 있다. 부모들이 먼저 식사에 앞서 합장하고 공양계를 외우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바부공양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다. 복잡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바부공양을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양에 앞서 위

우의 공덕을 생각하며 도업을 이루는 약으로 삼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 또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뜻은 탐닉치 삼복을 끊고 허물을 떨치고 마음을 잘 다스려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으로 맛에 탐닉하여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행을 위한 좋은 약으로 먹는 것이다.

불자가정의 식사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한 식사에 앞서 온가쪽이 합장하고 약식 공양계를 외우도록 하자.

"이 음식에 깃든 모든 이들의 공덕을 생각하며 도업을 이루는 약으로 삼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도 신세대들에게 어울리는 사고이었다. (0525)42-2991

불교, 원전으로 만나다
가산불교문화원 강좌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 사정원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가산불교문화원(원장 지관스님)은 불교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자변확대를 위해 96년도 제1기 연구위원을 모집한다. 저녁 7시30분~9시까지 연구원법당에서 격주로 진행되는 불교원전연구회에는 한문불전 연구과정(금)을 비롯, 범어(월)·티벳어(화)·필리핀어(수) 연구과정(수)이 개설되어 있다. 강의는 원장 지관스님과 이종철 연구위원(서울대 강사), 허일범 진각대학 교수, 최봉수 동국대불문학부 상임연구원이 각각 맡는다.

12월31일까지 임회원서 1부와 사진 2매를 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02)765-9602~3

혹성 넘니드는 시간여행
불교문화센터 영화상영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 보는 연말이다. 이럴때 시간여행을 하는 것은 무척 경이로운 일이다. 불교문화센터 영화보기도모임은 오는 8일 오후7시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스타게이트'를 통해 시간여행을 떠난다.

첨단 테크놀로지 SF액션 '스타게이트' 영화내용은 삶의 낙을 잃어버린 짝 오닐 대령이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신비한 원형유물로 수백광년 떨어진 은하계의 한 혹성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이 혹성의 지도자는 영원불멸의 생명을 얻기위해 지구인의 육체를 취하고... (02)703-0108

생명의 공존

모든 생명체 '먹이연쇄'로 자연조화 이뤄 어떠한 종도 천적없이 살아남을 수 없어

경집(經集 Suttanipata)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닷가에, 너희들에게 생명체들에 대한 종의 구별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리라. 종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풀이나 나무를 알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종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종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매뚜기에서 작은 개미에 이르기까지의 곤충들이 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발 달린 동물들이 있을

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나 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날개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알아야 한다. 이와같이 이러한 태어남에는 태어남에 기인하는 특징이 각기 다르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태생의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 파악한 다양한 생명체

나 동물은 배고 인간만을 취함으로써 초기 경전에서 주장하는 개념적 균형을 파괴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식물도 생명체로서 중생의 개념에 속한다.

모든 생명현상은 두개의 뾰족단이 상호의존해서 서 있듯이, 어느 것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것도 성립하지

않은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강한 의존관계는 생명현상의 먹이연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과거에 파리, 모기 등이 창궐한다고 물구멍이를 얹고 화장실을 수세식수로 바꾸고 논밭의 매뚜기는 농약을 쳐서 없애 버렸다. 그 결과, 그러한 곤충들을 먹이로 하는 새

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파리, 모기, 매뚜기 등을 원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새들과 그들의 노래소리는 영원히 살아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새들의 먹이였던 곤충이 소멸하면 새들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체들

신행수첩

월간 '해인' 가족모임

편집진 필자 독자 한 자리에

월간 '해인'을 만드는 편집진과 필자, 그리고 독자들이

한해를 마감하며 한 자리에 모여 호뜻한 시간을 갖는다. 월간 '해인'은 오는 12월 23~25일(2박3일) 해인사에서 독자 1백50명을 대상으로 수행과 강연, 대화의 시간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인가족모임'을 마련한다.

초청강사와 강연주제는 현재 '해인'지 필자로 이철수씨의 판화이야기, 주영덕씨의 표지 이야기와 문화교양강좌로 민회식교수(한양대 불문과)의 '법화경과 신약성서의 비교' 장희욱교수(동국대 불교학)의 '불자의 사회인식과 자제'와 '불교의 생활화' 그리고 TV드라마 '육아미모'의 작가 김홍경씨, 작가 현진섭교수의 대화 등이다.

한편 이번 모임에서는 매일 새벽예불로부터 백팔참회를 하며 명상을 통한 요가수행도 경험한다. (02)312-6548

역대고승 머무른 윤필암

용진신행회 사불신순례

여름내내 율창했던 나무들도 앙상한 가지만 드러낸 겨울산에는 독경소리 울려 퍼지는 산사가 있어 더욱 아름답다.

특히 경상북도 문경의 사불산(四佛山)은 오랜 옛날부터



◇월간 '해인' 편집진, 필자, 독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행과 강연, 대화를 갖는 해인가족모임이 해인사에서 열린다(사진은 작년 첫회 모임).

원호, 의상, 나옹, 무학, 함허 등의 고승들이 머물렀던 대승사, 윤필암과 같은 암자들이 산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용진신행회는 오는 12월10일 사불산 윤필암과 대승사 참배를 떠난다.

사불산의 산마루에는 6경 붉은 비단에 싸인 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오는 사면석불상(四面石佛像)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석불바위를 왕이 와서 친견하고 장전했다는 대승

사는 겨울산사의 고적함과 자재로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02)279-1191~3

신세대는 옛것도 알아야

봉화산 수련원, 한문서당

한문공부도 역사를 배우요! 온 가족이 가슴을 조이던 수능시험을 비롯해 학사일정이 마무리 되는 12월, 12월연간만의 여유를 만끽하기에 제격인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다.

봉화산청소년수련원은 한문서당을 개설, 실력향상은 물론 예절습득과 인성개발의 기회를 오는 24일 마련한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청소년수련원 내에 개설되는 한문서당은 남녀 구별없이 국민학교 4학년부

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96년 1월18일까지 연다. <사자소화> <생활한자> <명심보감> 등을 교재로 배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보는 것

진취적 기상 기르는 화랑의 후예 동쪽나라 26일~1월16일 수련캠프

우리는 화랑의 후예. 일상생활에서 탈출하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심신을 단련하고, 진취적 기상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 겨울캠프가 천년고도의 땅 경주에 마련된다.

지난 6년동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건전한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왔던 월간 '동쪽나라'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6회에 걸쳐 수련캠프 '화랑학교'를 개설, 화랑을 모집한다.

국민학교 2학년부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펼쳐지는 화랑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무술인 택견, 활쏘기, 전통놀이, 우리음악 등을 배운다. 또 역사탐방을 통해 찬란한 신라의 문화유산도 돌아본다.

윤경철선생님을 교장선생님으로 모시는 이번 화랑학교는 다양한 배움의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263-1387

"석가산 큰스님께 드리는 말씀..."

큰스님 그간 법체 여여하신지요?

큰스님께서 원용결사에 임하시면서 화엄경 사경이 5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사경이 끝나지 않으면 사경실을 나가지 않겠다 하시었습니다.

큰스님께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중생의 목적과 성불의 제1의제도 중생과 더불어 노니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큰스님께서 평소에 행하신 범행과 불교학문은 높으신 견식과 번뜩이는 선지에 저희들은 항상 경외심을 내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큰스님이 계시지 않으신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큰스님께서 결사하신 후에야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더이상 큰스님의 자리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큰스님께서 원용결사를 하신 후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제자들이 큰스님의 사자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정진하시는 성불의 목적도 중생계에서 중생과 노니기 위해서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대홍수 때에 사경실이 떠내려갈 위기 때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용맹정진으로 사경에 진력하시던 큰스님의 모습에 저희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엄숙함으로 환희를 가슴에 안게 되

었습니다.

이제는 큰스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사경도 끝내시었고 범인으로서의 상상하기 힘든 용맹정진으로 남자의 귀감이 되셨으며 또한 중생계에 사표가 되셨습니다.

큰스님! 이제는 원용결사를 해제하시고 저희들과 중생계를 위하여 설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간곡한 청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애타계 감로법을 기다리는 중생을 위해 사자후의 무진법문을 전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다시 한번 청하옵건데, 큰스님께서 증득하신 바 법월에 자적하실 수 있으나 널리 중생계를 위하여 묵언과 결사를 해제하시어 감로법을 전해 주시옵소서!

- 중화민국: 진혜향, 진혜여, 등혜인 ●싱가폴: 임준명 ●미얀마: 슈완 ●대한민국: 김능혜
- 말레이시아: 마진 ●태국: 구네 ●스리랑카: 르완랑카 ●화엄사경회: 손무량광

세속 유발 제자 각국 대표 일동 합장

한국불교대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한문서당, 보리정사, 원용사, 영산불원, 서림선원, 석굴암, 가야정사, 대원사, 극락정사, 지장정사, 불광사, 시흥5동 복지관, 화승 어린이집, 배꽃 어린이집, 강동경찰서 경승협의회, 꿈나무 어린이집,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한·스리랑카불교문화교류협회, 한·인도불교문화교류협회, 한·싱가폴불교문화교류협회

구생종찰 원용사 석가산큰스님문도회일동합장